

세계잼버리 유치 막바지 '표심잡기'

긴급재난문자 직접 보낸다

새만금개발청, 세계스카우트 총회 참석... 아제르바이잔서 유치 활동

새만금개발청은 8월 14일~1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에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한국대표단은 단장(스카우트연맹 서은배)을 비롯해, 스카우트연맹 총재, 여성가족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 지사, 스카우트의원연맹(유치위원장 이주영 등) 등 100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계스카우트 총회를 통해 8

월 16일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가 결정되며, 총회 기간 상대국인 폴란드와 치열한 득표전이 예상된다. 이번 세계스카우트 총회에는 잼버리 유치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주무 부처)를 비롯해 외교부 등도 함께 참여해 지원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유럽, 아랍, 중남미 등 주요 대륙 총회에 참가해 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개최지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을 전담하여 새만금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국리셉션 개최, 국제의 밤 행사 홍보활동, 유치 후보국 설명회(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대한민국 새만금의 개최 역량을 최대한 부각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지 의사도 적

극적으로 표명할 예정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그동안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온 만큼,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막바지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게 되면, 새만금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나아가 새만금 내부개발 특히 잼버리 개최 예정지인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 송출권한 이양... 폭염·화재정보 실시간 제공

전북도는 그동안 안전행정부(소 국민 안전처)가 가지고 있던 긴급재난문자(CBS) 송출권한을 이양 받아 오는 8월 16일부터 직접 송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북도가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신속하게 발송하게 돼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긴급 재난문자의 경우 지자체의 요청과 행정안전부의 승인과정에서 발송 시기를 놓치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재난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도에 긴급 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북도는 지난 8월 AI 재발생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도내 전지역에 긴급재난문자(CBS)를 직접 발송한 바 있다. 긴급재난문자방송시스템(CBS)은 휴

대폰에 내장된 CBS기능을 이용하여 재난해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지역에 관련 내용을 CBS가 가능한 휴대폰 소지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이에 따른 대비 또는 조치를 위한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 서비스이다. 긴급재난문자방송시스템(CBS)는 특정 휴대폰이 아닌 해당 기지국 선택 지역의 모든 휴대폰으로 동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시스템으로 신속성과 광역적인 면에서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날로 다양해지는 재난에 신속한 대처 필요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권한이 이양된 만큼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실시간 맞춤형 재난정보의 제공으로 도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혼을 담아 마음쓰는 국가대표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경북 의성 컬링 센터를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첫 광복절 경축식 참석

한반도 메세지 전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매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하면서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왔다. 이번 광복절 행사는 문 대통령의 취임 첫 광복절 경축식 참석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어떤 경축사를 내놓을 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코리퍼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통일 구상을 밝힌 바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도발이란 엄중한 변수를 만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경축사이니 동북아 평화와 번영 메시지가 담기지 않겠느냐"면서 "현재 한반도 상황 관련 어떠한 메시지를 담을 지 숙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도 소방안전타운 조성 '장수군' 결정

헬기장 설치 용이성 등 좋은 평가 | 도-군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기대

전북도 소방안전타운 조성 후보지가 장수군으로 결정됐다. 도는 소방안전타운 조성 부지 공개 모집에 신청서를 제출한 3개 군 후보지에 대해 건축 항공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가 지난 8일 현지실사와 부지평가를 실시하여 장수군 계남면의 장수 IC 인근 군유지를 1순위 사업 예정지로 결

정했다고 밝혔다. 장수군 계남면 부지는 소방헬기장 설치 용이성, 적정 가격 부지 매입 및 사업 추진 신속성, 동부 산악지역의 신속한 구조 대응, 장수군의 적극적인 유치 의사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재 소방본부장은 "소방항공대의 안전운항 여건을 확보하고 향후

대테러 특수재난 등에 전문 대응하는 특수구조단 신설로 소방 안전서비스를 강화하며 소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소방교육대 설치로 동부권 개발을 통한 도내 지역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장수군의 숙원사업인 계남 양돈단지 철거와 연계한 부지 활용으로 도-군간 상생협력사업의 우수사

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방안전타운 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여 원으로 1단계 소방항공대 이전을 시작으로 2단계 소방본부 직할 119특수구조대와 3단계 소방 교육대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하반기에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정의용 안보실장-맥매스터 美 보좌관 통화

40여분간 한반도 정세 등 주변 안보·국민 안전 등 논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일 전화통화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긴장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정의용 실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0분간(한국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측은 북한 도발과 긴장고조 행위로 인한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의 안보상황,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협의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한미 전화통화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해 나간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